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3일 간의 열전이다.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명함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벽보가 곳곳에 나붙었고, 공보물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포함해 전국 16곳 광역단체장을 선출한다. 동시에 광주 광산을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곳에서 치러진다. 미니 총선이다.

‘화향백리 인향만리(花香百里 人香萬里)’라고 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향기의 매력은 바람에 실려 널리 퍼짐에 있다. 그 누가 유권자의 마음을 붙잡을까?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취할 전략은 일 잘하는 집권 여당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차지했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초강세로 일제강점기 승부가 갈리는 듯했다. 경북을 제외한 15대1 압승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현저히 줄었다. 상당수 혼전 양상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여권이 추진한 조작 기소 특검법 논란이 보수 결집을 불러왔다.

선택 6·3

검찰과 정권의 유착 폐해를 꾀하기 위해 필요성은 충분했다. 마땅히 절제돼야 했다. 재보선도 비상등이 켜졌다. 14곳 중 대구 달성군을 뺀 13곳이 소속 의원 지역구다. 잘 해야 본전이다.

지지율에 오만했다. 광주·전남을 비롯, 공천 갈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 정당, 무소속의 도전 역시 만만찮다. 지도부가 영남 공략에 치중하다보니 호남 홀대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러버서’라고 비꼬았다. 호남에서 회초리를 맞는 국민의힘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헌법 개정이 무산됐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갈수록 윤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반면 안방인 영남권은 다르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독점에 대한 경계심이다. 수도권외 부동산 정책도 재검토하고 있다. ‘절운’을 둘러싼 자중지란에서도 여론조사 상 오차범위 안팎에서 얼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백중세 지역이 늘었다고 판단한다. 경북을 우세로 점치고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5곳에선 해발만한 싸움으로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권 초기엔 야당이 불리했다. 특히 지금 이 대통령府的 국정 지지율이 60%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당동력 대표의 색깔론 같은 우파 행보는 후보들 입장에서 적잖이 부담이다.

광주·전남의 선택을 받으려면 수권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새로운 미래를 담보한 결정이지만 장밋빛만은 아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의 기대 만큼이나 40년만에 합치는데 따른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의과대학 신설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상대 비방보다는 지역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화려한 겉치레 말보다 실천 가능한 참공약으로 자신이 왜 책임자인지 검증대에 서야 한다.

민주당은 호남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 전국 판세처럼 초반의 싸움이론이 흔들리고 있다. 심장부가 수상쩍다. 집토끼가 떠나고 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초광역 통합을 제안하고 성사시켜 힘을 실었으나 그뿐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 1년만의 선거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은 12·31비상계엄과 윤여계언을 겨냥한 내란세력 격결을,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의힘은 한참 선을 넘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2주 뒤에 누가 웃을까. 민주당은 입법부, 행정부에 지방정부까지 석권해 완전한 권력 교체를 바라고 있다. 양 극단으로 지지층이 더 몰리면서 줄어들기 했지만 20%대 부동층의 선택이 최대 변수다. 강성 당원들에 휘둘리는 정치에 질린 중도보수의 표심을 다독여야 한다.

결국 먹고사는 민생이 중요하다. 오롯이 시민 행복을 위해 낮은 자세로 뛰어야 한다. 무릇 자질과 능력이란 것도 꾸준한 노력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흔히하는 말로 ‘그나물애 그밥’은 아니어야 한다. 투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냉소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투표에 앞서 사전투표는 5월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바야흐로 본격 선거국면이다.

문화난장



최래오
들꽃작은도서관장

돌아보면 내 삶에 영향을 준 것 중 하나는 영화였다. 필자는 어린 시절 영화관 옆에 살았다. 어른들의 웃자락을 붙잡고 물레 따라 들어가기도 했고, 답장 및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 가다가 들켜 얼굴에 페인트 칠한 벌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다. 그 때의 부끄러움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영화에 대한 열정이었다. 영화 사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내가 즐기는 취미 가운데 가장 부담이 적고 만족이 큰 것은 영화 감상이다. 한 편의 영화에는 감독과 작가, 배우와 스태프들의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두 시간 동안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느낌은 가장 즐거운 소비이다. 오랜 시간 영화를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영화 같은 삶을 꿈꾸게 됐다. 사랑·만남·이별도 조금은 영화처럼 살아 보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약간 공상적이고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책을 읽다가 나이가 들면 병상에 누워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라는 글을 읽었다. 나는 그 글을 읽고서 곧 바로 영화를 떠올렸다. 저장장치에 수많은 영화를 모으기 시작했다. 병석에 누워서 영화를 보면 된다. 영

화 속에서 추억을 되살리며 현재를 즐길 수 있으니까. 살다 보면 문득 영화 속 한 장면이 현실과 겹치는 순간이 찾아온다. 젊은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친구를 태웠던 날이 있었다. 어느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이 떠올라 속도를 높이며 뒤에 앉은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외쳐 보라고 했다. 두려움 속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지금은 얼굴조차 흐릿하지만, 순간에 만들어진 한 장면의 추억에 미소 지어진다.

중학생 때 단체 관람으로 본 영화 ‘워털루’도 잊지 않는다. 전투에서 패한 나폴레옹이 검지와 중지 잡고서 뒷짐을 지는 장면이 유난히 인상적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무심코 뒷짐을 질때면 검지와 중지를 잡게 된다. 또 다른 기억은 ‘쇼생크 탈출’에서 시작된다. 감옥에서 탈옥을 준비한 앤디가 폭풍우가 치던 밤, 긴 오수관을 기어 나와 번개 치는데 양팔을 하늘 높이 벌리며 환희를 터뜨리는 장면이 있다. 폭풍우에 번개 치는 날 작은 선술집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즐기는 날이 있었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다. 취기에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는지 후배에게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폭풍우에 번개 치는데 밖에 나가서 젓가락을 들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서 있어 죄가 있는가 확인해 보자는 취기어린 게임을 했다. 취중에 한 망용이었지만 웃고 있던 술집 주인도 결국은 젓가락을 들고서 밖에 서 있게 된 귀중 영화 속 한 장면을 만들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 그 환희를 생각하며

영화가 좋다

기지가개를 편다. 살아있다는 자유를 외치는 기지가개다. ‘바그다드 카페’ 영화 주제곡인 ‘C alling You’는 스산한 마음이 일어날 때 즐겨 듣는 노래이다. 노래에서 모래바람이 이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외로움.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몽환적인 목소리로 나를 사막으로 인도한다. 사막의 먼지 속에서 일어나는 듯한 생동감으로 에너지로 충전한다. ‘브레이브하트’에서는 잉글랜드 폭정에 맞서 저항하는 윌리엄 윌리스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Freedom~’이라고 절규하는 장면은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퇴직 후 자유의 환희를 잊지 않고 치열하게 또는 그냥 다가오는대로 살아가고 있다. 영화 ‘레옹’을 보며 흑여 내가 노숙자가 되더라도 ‘아글라오네마’ 화분을 옆에 두고 새 신문을 덮고 자야겠다는 생각이 해본다. 시골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뉴스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보다 추억의 명화 한편과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영화 한편으로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 간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롭게 방영되는 영화를 기다린다. 영화관을 가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짧은 여행을 떠난다. 영화가 끝나는 시간이 날이 어둑해지는 때였으면 한다. 밖을 나설 때 어두워지면 관람한 영화가 더 즐겁게 느껴진다. 단골 바에서 좋아하는 음악에 카테일 한 잔으로 보았던 영화를 음미하며 하루의 추억을 마무리한다. 영화 속 추억에 미소를 지어 본다. 그 가운데 꿈을 꾸며 다가오는 새로운 날을 가슴 설레며 맞는다.

독자투고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고교생 대상 사건은 학생들의 하굣길 안전을 돌아보게 한다. 학교를 벗어난 통학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일상 속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학로에서는 경찰과 지역사회, 자율방범대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 활동을 이어갈 때, 학생들은 더욱 안심할 수 있다.

학생 안전 모두가 함께 지켜야

단순히 순찰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점검하고 대응에 동참할 때 통학 환경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학교와 지역 주민이 위험 요소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을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공동체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

속될 때, 학생들은 보다 안전감을 느끼며 통학과 귀가를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도 함께 높아진다.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은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되며, 서로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대응할 때,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게 통학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전유림·장흥철서법 범죄예방대응과>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사실상 민선9기로 공 넘긴 광주 자원회수시설 난제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열여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법률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백지화의 이유를 들었다.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율’에 미달한 것이다. 최근에 위법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를 제외하면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3차 공모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실상 민선9기로 공이 넘어갔다. 광주시는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에 입지선정위는 삼거동 8만3천700㎡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이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산업단지까지 인접하고,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진입에 유리한 점 등을 높이 샀다.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결정고시하고 최종 확정하기

로 했다. 앞서 2023년부터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며, 공모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무산됐던 터였다. 시는 이후 2024년 8월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신청을 통해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 입지를 발굴하고 전문기관 평가를 받음으로써 기대감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으로 친환경적 측면을 부각했다.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용 견인하는 주민친화시설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속도를 냈으나, 결국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수년 간 제지리걸음이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인데도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행·재정적 낭비가 지 심각해 보인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도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장기간 지연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5·18 탱크데이’ 책임 묻길

‘5·18 탱크데이’ 파장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5·18 단체가 정몽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합당하게 책임을 묻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 삼아야 한다. 정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기괴한 마케팅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츠’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탈북(화일탈북) 행렬도 잇따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을 상업화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물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6·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역사 왜곡 처벌법 강화 등을 거론했

다. 미국 본사의 브랜드 라이선스 회수 조치도 요구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등을 수록한 개헌안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처지길 바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아쉬움이 큰 것이다.

‘책상을 탁 쳤더니 역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썼던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2019년 속건성양 말 광고까지 소환되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가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게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며 “사회공공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상도의라는 것도 있다”고 재차 강하게 질책했다.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 솔직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 한다. 지금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과 맞닿아 있는 이마트 앞에서는 규탄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사법 당국은 기업의 해프닝으로 가볍게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다카시 광장

등글게 산다

황준규

나는 본래 네모난 등(燈)이었어 오고가는 이의 따가운 시선과 한마디 충고가 나를 등글게 만들었어



이제는 스스로 모서리를 접으며 빛을 나눈다

※ 시작노트

오늘은 유달리 승정역(驛舍)을 비추는 천장의 등불이 더 등글게 보였다. 저 등근 빛도 그냥 생긴 것은 아닐 것이다. 세월 속 행인들의 시선과 시민들의 제보에 덮고 덮여 저리 되었을 게다. 모난 내 마음도 언젠가 저 등불처럼 등글어질 수 있을까. 파도에 오래 닿은 하얀 조약돌처럼.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